

# 격 려 사



유 중 탁 차 관

친애하는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제5회 전국양돈인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국회 이철우 의원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대한양돈협회 전동용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이를 잘 이겨내고 이제 농어가의 주요 소득 원으로 그 위치를 굳혀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면에서도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체 육류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넘는 60% 수준에 이르고 있음은 물론, 최근에는 농수축산물의 수출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분과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난 84년 이래 계속되어 온 양돈호황과 이에 따른 사육두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즈음 성돈 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의 이 대회를 계기로 이 어려운 국면을 합리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늘의 이 양돈 불황을 예견하고 사육두수를 적정규모로 감축하여 주실 것을 전국의 양돈농가에게 호소하는 한편, 몇가지 주요한 시책을 펴 왔습니다.

첫째는, 등록·허가업체의 사육감축조치를 취하였으며, 둘째는, 대규모 허가업체에 대하여 수출의무량을 부여함으로써 부업양돈농가를 보호하는데 최대한의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돼지 값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23일부터 도매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지육을 수매하도록 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산지에서도 모돈과 비육돈의 수매도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서 내주 초부터 수매에 들어갈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양돈불황은 정부의 이와같은 조치와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양돈인 여러분께서도 현재의 사육두수가 4백 50만두를 초과한 사상 최고 수준임을 감안하여, 자발적이면서도 과감한 두수감축에 임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모든 감축에 힘써야 함은 물론, 현재

기르고 있는 비육돈도 앞당겨 출하하여 돼지고기 생산을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홍보요원이 되어 돼지고기의 획기적인 소비에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장기적으로도 양돈업이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종돈 개량, 생산성 향상, 축산관측, 돼지고기 수출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전국 양돈인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시대적으로 민족의 도약과 “위대한 나라” 건설의 성패를 가름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0년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단임 임기를 마치고 평화적 정부이양을 순조롭게 실현하는 일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나라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일이 이 시대의 국민적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안정성장과 발전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혼란없는 나라발전”과 “민주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인 여러분께서도 전동용 회장님을 중심으로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11월 24일

농림수산부 차관 유 종 탁